



**한국노어노문학회**

Корейское Общество Преподавателей Русского Языка и Литературы  
The Korean Association of Russian Language & Literature

# 한국노어노문학회 소식지

2017년 8월 제 76호



**발행처:** 한국노어노문학회

**발행인:** 이영범

**편집인:** 김태진

**주 소:**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대성로 298 청주대학교 교수연구동(10동) 307호

**전 화:** 043-229-8395 **팩 스:** 043-229-8023

**계좌번호:** 국민은행 918001-01-379858 / **예금주:** 김태진(한국노어노문학회)

**Homepage:** <http://www.karll.or.kr>

**대표 이메일:** karll21@hanmail.net / **논문투고 이메일:** karll\_edit@hanmail.net



# КОПРЯЛ

## 차례

<b>권두언</b> .....	<b>3</b>
<b>회원논단</b> .....	<b>5</b>
<b>2017년 4개 학회 공동학술대회 일정</b> .....	<b>8</b>
<b>신간안내</b> .....	<b>13</b>
<b>회원동정</b> .....	<b>14</b>
<b>학회지 발간 안내</b> .....	<b>15</b>
<b>학회지 투고 요령 및 심사규정</b> .....	<b>16</b>
<b>회비납부 현황</b> .....	<b>21</b>

## 권두언



КОПРЯЛ

# 중앙아시아 스탠 3국에서의 러시아어 지위

김태진 배재대학교

1990년 6월에 러시아는 소련으로부터 독립을 의미하는 주권 선언을 채택하면서 구소련은 붕괴는 시작이 됩니다. 이듬해 1991년 12월 고르바초프 서기장이 사임하면서 붕괴가 완성이 됩니다. 이로부터 벌써 27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구소련의 붕괴는 예상치 못한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2005년 의회에 보내는 교서에서 ‘소련 붕괴를 20세기 최대의 지정학적 재앙’ 이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당시 푸틴 대통령은 붕괴 후 사회복지 시스템이 완전히 무너졌고, 경제 여러 부분이 완전히 멈추게 되었으며, 보건 시스템도 사실상 무너졌고, 국방 또한 아주 열악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여러 면에서 수십 년간 유지되고 있던 시스템이 하루아침에 그 기능이 마비가 되니 이러한 결과는 당연하다고 할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언급은 하지 않겠지만 이는 중앙정부에 의지하고 있던 구소련 구성 공화국들에게 심각한 영향을 주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구소련의 붕괴가 20세기 최대 지·경학적 재앙이라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기에 또 하나의 재앙 아닌 재앙으로 볼 수 있는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러시아어의 지위문제입니다. 구소련 붕괴 전에는 러시아어는 구소

련에서 자유롭게 반드시 구사해야할 언어였습니다. 그래서 학교 교육에서 러시아어는 당연히 배워야 하는 것으로 여겼고, 또 반드시 필요했죠. 구소련 붕괴이후에도 타 공화국에서의 러시아어의 지위는 지속적으로 유지가 될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언어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눈치를 채셨겠지만 결론적으로 말하면 정치적인 문제인지는 모르겠으나 러시아어를 사용하려고 하지 않는 구소련 국가들이 발생을 했는 겁니다. 간단한 실례를 들어보겠습니다. 러시아 제 2의 도시인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산부인과에 외국인 산모들이 많이 와서 출산을 한다고 합니다. 외국인 산모들이다 보니 당연히 통역자가 필요한데, 재미있는 점은 영어나 프랑스어 통역자가 아닌 우즈베키스탄, 아르메니아 등 구소련 연방 국가의 통역자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들 국가들은 러시아어를 사용하는 국가들이었습니다. 구소련 해체 후 25년 만에 러시아 산부인가를 찾은 구소련 국가 출신 젊은 산모들의 대다수가 러시아어 소통이 원활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는 구소련 붕괴이후 공교육에서 러시아어 교육을 제대로 배우지 못했다는 것을 반증합니다. 이미 발트 3국에서는 교육시스템에서 러시아어의 역할을 축소하고 배제하는 국가정책을 취하고 있어 러시아어를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구소련이

붕괴되지 않았다면 이러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겠죠. 심한 표현이 아니라면 러시아어에 정을 둔 우리에게 문화적 재앙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행인 것은 대부분의 공화국의 도시권은 러시아어로 의사소통을 해도 무난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구소련이 해체가 된지 27년이 되었지만 아직까지 러시아의 영향력이 큰 것 같습니다.

저는 지난달에 스탠 5형제 국가 중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을 다녀왔습니다. 카자흐스탄으로 입국해 키르기스스탄을 경유해 타지키스탄 파미르 하이웨이를 통과하는 14박 15일간의 여정이었습니다. 이동한 경로를 계산해 보니 약 2,000km를 이동한 것 같습니다. 평소 구소련 붕괴이후 스탠 5개국에서의 러시아어 지위가 궁금해 했던 터라 이번 여정을 통해 이들 국가에서 러시아어의 지위에 대한 느낌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구소련국가였기 때문에 당연히 러시아어가 통용될 것이라는 생각은 했지만 서두에서 언급한 것처럼 구소련 붕괴 후 27년이 흘렀고, 이 기간 동안 일부 국가에서는 러시아어가 통용되지 않고 있어 만약 27년 전부터 이들 국가의 공교육에서 러시아어 교육을 소홀히 했다면 27년 전 태어난 아이들부터는 러시아어를 구사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란 개인적인 의견이 있었습니다. 우선 3국 모두 러시아어를 사용하기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카자흐스탄 기차에서 만난 40대와 20대 초반의 모자와 대화를 하면서 나중에 느낀 점이지만 가장 러시아어적으로 대화를 나눈 것 같습니다. 카자흐스탄 사람이었지만 마치 러시아 사람과 대화를 한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고, 모자의 말을 인용하면 거의 90%이상의 젊은이들이 러시아어를 구사할 수 있다고 합니다.

키르기스스탄에는 해발 1,606m의 이식쿨이라는 호수가 있습니다. 산정 호수 중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호수입니다. 이식쿨을 가면서 만난 현지 여자 가이드는 키르기스스탄 젊은이

중 85%정도가 러시아어를 말한다고 합니다. 역시 러시아인과 대화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타지키스탄에서도 러시아어로 소통하는데 문제는 없었지만 전통적인 러시아어 억양이기 보다는 다소 다른 억양처럼 느껴져 집중해서 들어야했습니다. 동행한 동료 교수도 저와 같은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3국 모두 마트나 공항 등지에서 러시아어를 하는 사람에게는 러시아어로 현지어를 하는 사람에게는 현지어로 응대하는 모습은 꽤 인상적이었습니다. 당연하겠지만 현지어를 우선적으로 말하고 차선으로 러시아어를 선택한다는 느낌이 강했습니다. 파미르하이웨이를 통과하면서 동승한 타지키스탄 현지인과 운전기사가 우리와는 러시아어로 자신들과는 타지키스탄어로 대화하는 모습에 이중 언어에 대한 부러움도 생기더군요. 한 가지 고무적인 것은 정말 오지중의 오지라고 할 수 있는 파미르하이웨이의 작은 마을에서조차 러시아어로 소통할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 지역에서 자란 젊은이들에게 학교에서 러시아어 교육을 소홀히 하지 않았을까 했는데, 7~8세 정도의 초등학생도 러시아어를 아주 자연스럽게 구사했습니다.

앞으로 30~40년 후에 이들 국가들에서 러시아어 지위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르메니아가 급진적으로 러시아어를 없애려고 하는 국가 중 하나인데, 제가 다녀온 스탠 3개국은 러시아어를 급진적으로 없애려고 하는 움직임은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들 국가들이 러시아어의 중요성을 인식해 러시아어의 지위를 유지하려는 노력이 있다는 점에 많이 고무적입니다. 그러나 다른 구소련 국가들에서는 어쩌면 러시아어의 입지가 줄어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러시아어가 타 공화국에서 필수나 선택이냐의 문제에서 필수로 되기를 간절히 기원해 봅니다.



## 회원논단

### 새 술은 새 부대에! 두려움을 용기로...



이경완 (한림대 러시아연구소)

올해로 러시아 문학계에 몸을 담근 지 어언 25년, 저의 나이를 생각하면 반평생 이상을 러시아 문학 전공자라는 칭호를 달고 살아온 셈입니다.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그 시간 동안 저는 러시아 문학 전공자로서, 더 나아가 보다 실용적인 러시아 지역학 연구자로서 여러 번 충격에 빠졌고, 앞으로도 그런 충격이 계속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러시아 문학 전공자로서 제가 받은 첫 충격은 고골의 문집 『아라베스키』에 대한 박사 논문을 쓰고 1년이 채 안 되어 찾아왔습니다. 그 문집에 대한 저의 관점이 지나치게 낭만주의적이었고 그래서 고골 작품의 내적 긴장과 모순, 모호성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든 순간, 저는 도저히 되돌릴 수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욱이 나중에 다시 읽어보니 비문법적인 문장, 비논리적인 구성, 그리고 근거없는 추정과 부정확한 참고문헌이 눈에 들어와서, 제가 이 분야에 계속 남아 있을 수 있을지 심각한 고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 뒤에도 논문을 쓸 때마다 연구대상에 대한 저의 지식과 이해, 사고력의 부족은 물론

표현력의 부족을 느끼면서 저의 한계를 느꼈고, 그 와중에 고골의 러시아적 정체성에 대한 저의 확신을 잃게 하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저는 고골의 삶과 작품세계에 대해 제가 러시아 중심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고 생각한 적이 없고 러시아의 비평 경향과 서구의 비평 경향을 포괄하는 보다 높은 관점에 도달하기 위해 나를 애쓰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한 우크라이나계 연구자가 쓴 우크라이나 중심적인 고골 비평을 읽으면서 저의 시각이 러시아 중심적인 시각과 우크라이나 중심적인 시각 사이에서 전자 쪽으로 상당히 기울어져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 충격 이후 저는 러시아 연구자들의 비평의 러시아 편향성을 경계하게 되었고, 이제는 고골을 정교 중심의 기독교-신화적인 세계관을 지닌 우크라이나-러시아 작가로 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뒤로도 고골 자신의 글, 당대 주위 사람들의 글, 후대 연구자들의 글에서 저의 확신을 허무는 다양한 관점의 선행연구들을 접하게 되었고, 시간이 흐를수록 고골의 수수께끼같은 삶과 작품세계에 대한 저의 판단과 해석을 수술대 위에 올려놓아야 함을 더 많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늘 열린 마음으로 제가 확신

하는 바를 보다 설득력있게 제시하는 동시에 그에 대한 반론과 문제제기를 겸손하게 듣고 진지하게 대화하고 생각을 발전시켜나가야 함을 느낍니다. 여기에서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는 성경 말씀과 이순신 장군이 명량해전을 앞두고 부하들에게 전했다고 하는 “생즉필사 사즉필생(生即必死 死即必生)”라는 명언이 떠오르네요. 저의 지식과 사고와 감정과 행동의 내용뿐 아니라 그 틀과 유형까지도 지속적으로 반성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앞으로는 영적, 지적, 감정적인 측면에서 크고 작은 충격들을 저의 발전의 기회로 삼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러시아 지역학 분야에서 자각하게 된 저의 선입견과 한계에 대해서 잠깐 나누고 싶습니다. 내가 현재 참여하는 지역학 프로젝트는 러시아 극동·시베리아 지역에서의 한러 경제협력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한국의 비극적인 근대사의 희생자가 된 고려인과 사할린 한인들의 과거와 현재를 처음으로 제대로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소비에트 해체 이후 1993년에 직접 중앙아시아에서 고려인들의 삶을 직접 보고 듣고 그 분들이 척박한 환경에서 일구어 오신 놀라운 성과들에 깊은 감동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의 아픔과 애환에 대해 제가 개인적으로 관여할 필요를 느끼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2015년 한림대 러시아연구소가 개최한 한국-사할린 연례국제학술대회에서 사할린 한인들의 과거와 현재를 직접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뿐 아니라 저 역시 이분들의 아픔에 대해 책임이 있음을 느꼈습니다. 우리의 근대사에 대한 무관심과 역사인식의 부재로 인해 러시아와 중앙아시아에 주로 흩어져 계시는 사할린 한인과 고려인들을 저와 동등한 동포로 대하지 못하였음을 깨닫게 되었고, 더 나아가 이분들의 아픔에 대한 무관심과 무지에 대해서 사과하고 배 이상으로 보상을 해야 한

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부끄럽게도 저는 이제서야 우리 정부, 학계, 시민단체에서 고려인과 사할린 한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동안 추진한 활동들을 구체적으로 접하고 있고, 특히 학계에서 러시아와 CIS 지역의 한인 디아스포라의 문제를 연구해 온 연구자 분들의 연구결과를 일부 접하면서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고려인과 사할린 한인의 역사, 언어, 문화, 교육, 생활상 등에 대한 다수의 연구보고서와 논문, 저서들이 나와 있고, 여러 재외동포 지원기관, 지자체, 민간 단체, 기업, 그 외 개인이 그분들의 상처를 위로하고 우리의 죄과를 보상하기 위하여 다양한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청소년들과 지자체들은 재러 한인 디아스포라의 문제에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참여하는 지역학 프로젝트의 틀 내에서 몇 년 전에 전국의 초중고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강좌”의 주제를 하면서 원하는 주제를 여러 항목들 가운데 선택해주시기를 요청한 적이 있는데, 초중고 학생들이 가장 많이 선택한 강좌 주제가 러시아 문학, 음악, 미술, 자연환경 등이 아니라 고려인과 사할린 한인의 역사 문제였습니다. 추정컨대, 이 주제는 우리의 역사인데도 청소년들에게 생소하고 교과서에서 배우기 어렵고, 또 그들이 사는 곳에서 이런 분들을 접할 수 있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재까지의 노력으로는 그분들의 상처를 위로하고 죄과를 보상하는 데 아직 충분하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올해 여름 광주 여행 중 광산구 고려인 마을에 가서 만난 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독립운동가의 후손인 고려인들이 우리 사회에서 겪고 있는 수모와 고통을 상세히 알리는 기사들을 읽으면서 저는 다시 충격을 받았습니다.(연합신문 2017년 3월 1일자, “독립운동가 후손들 목소리내야 민족 역사 바로 설 것”, 한겨레 신문, 2017년



8월 일자 기사, “고려인 동포가 문 대통령에게 보낸 ‘눈물의 편지’.” 큰 각성을 준 기사를 참조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간의 활동을 “새 술은 새 부대에” 라는 원칙에 따라서 질적, 양적으로 발전시켜서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나가야 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 부족한 부분들 중 최우선적으로 채워야 할 부분이 있다면 고려인과 사할린 한인을 우리와 동등한 국민으로 인정해주는 것인 듯합니다. 법적인 제도화를 통해서 이 분들이 동포로 인정되고 그에 자연스럽게 따르는 모든 제도적, 경제적, 사회문화적인 대우를 함께 받는 것이 이 분들의 가장 절실한 필요라는 것입니다. 그런 법적인 인정을 기반으로 이 분들의 과거, 현재는 물론 미래를 우리 자신의 문제로 받아들이는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인식을 바탕으로 그동안 각계각층에서 단기적이고 개별적으로 지원하던 활동들을 보다 장기적이고 체계적이며 포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고려인과 사할린 한인들이 대대손손 한국인으로서의 정당한 권리를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이 분들의 아픔이 치유되고 그 후손들이 한국, 러시아, CIS는 물론 세계 어느 곳에서든지 한국인으로서의 자긍심을 가지고 건실한 세계 시민으로서 세계 평화는 물론 한반도의 평화와 발전에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러시아 사회도 한국인들이 이제라도 자신들의 동포인 고려인과 사할린 한인을 소중히 여기고 그들의 권익을 도모해주는 것을 볼 때, 우리나라를 존중하고 우리와의 협력도 원칙에 따라서 더욱 진실되고 공정하게 대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본 정부는 지금도 2차 세계대전 중에 러시아 땅에서 러시아에 대항하여 싸우다 죽어간 자국민들을 기억하고 그들을 기념하기 위해 러시아 정부와 지자체의 협력을 구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현재 그곳에 살아있는 우리의 동포들, 그것도 일본에 의해 징용되거나 억압받다가 러시아에 남겨진 동포들을 자국민으로 인정하지 않고 그들을 위한 법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정책을 추진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러시아인들에게 어떻게 비칠지 우리 모두 깊이 생각해보았으면 합니다.

이렇게 우리 삶에서 자각과 각성의 순간들은 계속 다가올 것이고 특히 러시아 문학과 보다 실용적인 지역학 연구 분야에서만 접할 수 있는 자각의 순간들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 때마다 도전을 피하지 않고 이순신의 명령처럼 “두려움을 용기로 삼아서” 우리 동포를 동포로 인정하고 우리 민족은 물론 모든 나라와 민족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 2017년 4개 학회 공동학술대회 일정

### 2017 러시아학 관련 4개 학회 공동 학술대회

(한국노어노문학회, 한국러시아문학회, 한국슬라브어학회, 한국슬라브·유라시아학회)

### 러시아 혁명 100주년 기념 공동학술대회

- ☞ 주제 : 러시아 혁명 100주년: 열정과 좌절의 시간들에 대한 회상
- ☞ 장소 : 중앙대학교
- ☞ 일시 : 2017년 10월 14일(토) 09:00 ~ 17:30

일시		발표 및 내용	비고
2017. 10.14	09:40 ~ 10:00	개회사: 한국슬라브·유라시아학회 회장	
문화 분과A	<b>분과주제: 혁명기의 사상적 조류와 문화적 유산</b>		사회: 김문황(충북대)
	10:00 ~ 10:40	발표주제: 러시아 정교문화가 러시아 혁명에 미친 영향 - 신비주의적인 유토피아주의를 중심으로 발표자: 이경완(한림대)	토론: 문준일(한국외대)
	10:40 ~ 11:20	발표주제: 데카브리스트들이 시베리아 지역에 미 친 문화적 영향 발표자: 조미경(계명대)	토론: 윤새라(울산과기 대)
	11:20 ~ 12:00	발표주제: 톨스토이와 러시아혁명 발표자: 강명수(포항대)	토론: 송정수(중앙대)
	점심 식사	12:00 ~	점심식사



	13:00		
문화 분과B	<b>분과주제: 10월 혁명 전후 문화계 동향</b>		사회: 서상범(부산외대)
	13:00 ~ 13:40	발표주제: 소비에트 문화정책 연구 - 혁명 직후부터 1921년까지 인민계몽위원회 활동을 중심으로 발표자: 최진희(안양대)	토론: 오원교(경북대)
	13:40 ~ 14:20	발표주제: 혁명 후 소비에트 러시아의 문학장 연구 - 신문 문예란을 중심으로 발표자: 강수경(부산대)	토론: 김태옥(충북대)
	14:20 ~ 14:40	Coffee break	
	14:40 ~ 15:20	발표주제: 알렉산드르 고르스키와 러시아혁명 발표자: 신혜조(성균관대)	토론: 이명현(고려대)
	15:20 ~ 16:00	발표주제: 몽타주에 나타나는 시각이데올로기 고찰 발표자: 장혜진(건국대)	토론: 김상현(대구대)
	휴식	16:00 ~ 16:20	Coffee break
문화 분과C	<b>분과주제: 박노자 교수 특별 세션</b>		사회: 이강은(경북대)
	16:20 ~ 17:40	발표주제: Moscow as reality and cultural myth in colonial-age Korea (현실이자 문화적 신화로서의 모스크바: 식민지시대 한국의 경우) 발표자: Vladimir Tikhonov (박노자) (노르웨이 오슬로대)	토론: 조준래(한국외대)
문화 분과A	<b>분과주제: 문학 텍스트로 읽는 러시아혁명</b>		사회: 서상국(단국대)
	10:00 ~ 10:40	발표주제: 혁명과 체홉 발표자: 윤서현(서울대)	토론: 백승무(한림대)
	10:40 ~ 11:20	발표주제: 예술 속의 혁명, 혁명 속의 예술: <닥터 지바고>를 중심으로 발표자: 조혜경(대구대)	토론: 임혜영(고려대)
	11:20 ~ 12:00	발표주제: 스베틀라나 알렉시예비치 소설을 통해 러시아혁명을 돌아보다 발표자: 심지은(한양대)	토론: 정보라(연세대)

점심 식사	12:00 ~ 13:00	점심식사	
문학 분과B	<b>분과주제: 러시아문학과 장르의 문제</b>		사회: 박혜경(한림대)
	13:00 ~ 13:50	발표주제: 여행기 소설의 세 가지 기능 발표자: 서광진(숭실대)	토론: 차지원(서울대)
	13:50 ~ 14:40	발표주제: 전기 vs. 반전기: 탈신화화 수단으로서 의 반전기 발표자: 박선영(충북대)	토론: 김민아(서울대)
어학 분과A	<b>분과주제: 러시아 사회와 표준어의 발달</b>		사회: 정경택(경상대)
	10:00 ~ 10:40	발표주제: 러시아어의 사회언어학적 분석: 유기체 적 변화를 중심으로 발표자: 김형섭(중앙대)	토론: 황서경(연세대)
	10:40 ~ 11:20	발표주제: 러시아표준어의 형성과 발전과정에서 표준어의 사회적 기반과 언어주체의 상관성 발표자: 김용화(충북대)	토론: 김보라(충북대)
	11:20 ~ 12:00	발표주제: 러시아 친족호칭어 연구 발표자: 손현익(한국외대)	토론: 김태진(배재대)
	12:00 ~ 13:00	점심식사	
어학 분과B	<b>분과주제: 러시아어 형태와 통사의 분석</b>		사회: 조남신(연세대)
	13:00 ~ 13:40	발표주제: 러시아어 대명사 종출구문의 통사적 파생 발표자: 권경준(성균관대)	토론: 정정원(연세대)
	13:40 ~ 14:20	발표주제: 기사(copula)범주의 진화 : 러시아어 명사술어 구문의 분석적 경향 연구 발표자: 이남경(고려대)	토론: 안혁(성균관대)
	14:20 ~ 15:00	발표주제: 고대 러시아어 부정어 어순의 통사적 함의 발표자: 정하경(서울대)	토론: 김정일(경북대)
	<b>분과주제: 러시아어 정책과 통번역</b>		사회: 전해진(중앙대)
어학 분과C	13:00 ~ 13:40	발표주제: 러시아혁명과 민족적 소수 발표자: 정경택(경상대)	토론: 변군혁(한국외대)

	13:40 ~ 14:20	발표주제: 소련의 대 소수민족 언어정책 - 고려인을 중심으로(Советская национально-языковая политика и корейская диаспора) 발표자: 잔나 발로드(서경대)	토론: 장디아나(대전대)
	14:20 ~ 15:00	발표주제: 20~21세기 러시아의 한국 문학 번역 (Перевод корейской литературы в России в XX- XX I веке) 발표자: Писарева Лариса (중앙대)	토론: 이해승(수원대)
휴식	15:00 ~ 15:30	Coffee break	
어학 분과D	분과주제: 러시아어 텍스트와 교수법		사회: 김진규(고려대)
	15:30 ~ 16:10	발표주제: 논증적 담화의 수사적 특성 발표자: 권용재(경기대)	토론: 박현아(고려대)
	16:10 ~ 16:50	발표주제: 관용어 사전편찬을 위한 기초연구 - 신체어를 중심으로 한 대조 및 의미 분류 발표자: 김희연(한국외대)	토론: 오정현(중앙대)
	16:50 ~ 17:30	발표주제: 카잔 출판 교재 “고려인을 위한 키릴문자 (Азбука для корейцев, 1902)” 연구 발표자: 한지형(부산대)	토론: 이새봄(한국외대)
사회 과학 분과 A	분과주제: 러시아 혁명과 주변부의 문제		사회: 서동주 (국가안보전략연구 원)
	10:00 ~ 11:00	발표주제: 제국 주변부에서의 러시아 혁명: 아르 메니아의 인종갈등과 국경분쟁 발표자: 강윤희(국민대)	토론: 황성우(한국외대)
	11:00 ~ 12:00	발표주제: 러시아 혁명적 관점에 본 북한사회주의 체제 발표자: 박종수 (사)동북아공동체연구재단(정책위 원)	토론: 김연수(국방대)
점심 식사	12:00 ~ 13:00	점심식사	
사회 과학 분과 B	분과주제: 러시아 혁명과 러시아 사회의 궤문제		사회: 장덕준(국민대)
	13:00 ~	발표주제: 혁명과 국가와 사회 : 러시아혁명 이후 국가- 사회관계의 변화	토론: 김성진(덕성여대)



	14:00	발표자: 김창진(성공회대)	토론자: 정세진(한양대)
	14:00 ~ 15:00	발표주제: 러시아학계의 러시아혁명 연구 : 소련 붕괴 이후 역사학계를 중심으로(Исторические Исследования Русской Революции в России) 발표자: 블라지미르 바바쉬킨(Владимир Бабашкин) (러시아 대통령실 산하 국민경제 및 공공정책 아카데미 교수, Профессор, Академия Народного Хозяйства и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Службы РФ)	
휴식	15:00 ~ 15:30	Coffee break	
사회과학 분과 C	분과주제: 러시아 혁명과 동유럽		사회자: 박수현(경희대)
	15:30 ~ 16:30	주제: 1917년 러시아 혁명과 남슬라브족: 그 영향과 의미 발표자: 김철민(한국외대)	토론자: 조준배(서원대)
	16:30 ~ 17:30	주제: 헝가리 소비에트 공화국과 러시아혁명 발표자: 김보국(한국외대)	토론자: 노경덕(이화여대)

17:30 ~ 19:30 만찬 (장소는 당일 공지)



## 신간안내



▷ 카렐차페크 단편집 <첫 번째 주머니 속 이야기>

저자: 카렐 차페크 / 번역자: 김규진(한국외국어대학) / 을유세계문학 / 2017년

체코를 대표하는 작가 카렐 차페크의 천재적인 유머가 돋보이는 단편집

20세기 체코가 낳은 가장 위대한 작가이자, 프란츠 카프카, 밀란 쿤데라와 더불어 명실공히 체코를 대표하는 세계적인 작가로 평가받는 카렐 차페크. 그는 또한 ‘로봇’이라는 단어를 처음으로 탄생시킨 희곡 《R.U.R》 등의 작품을 통해 오늘날 공상과학소설(SF)의 시조로 불린다. 『첫 번째 주머니 속 이야기』에는 이러한 차페크가 쓴 굉장히 독특한 미스터리 단편집 ‘주머니 이야기’ 48편 중 24편이 담겨있다.



## 회원동정

승주연 회원이 제15회 '한국문학번역상' 을 공동수상하였다. 수상작은 김영하 작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아무도』(문학동네)를 알렉산드라 구젤료바와 공동번역한 “Никто не узнает” 이 공동 선정되었다. 제15회 한국문학번역상은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번역·출간된 도서 18개 언어권 97종을 심사대상으로 하였다. 언어권별 1차 심사는 원어인 심사위원단이 가독성, 문학적 스타일, 해외 수용도를 중심으로 평가하여 14개 언어권 38종이 통과되었다. 2차 심사는 언어권별로 내국인 심사위원이 원작의 이해도, 번역의 충실성 및 완성도를 기준으로 심사하여 총 13개 언어권 15종의 작품이 통과되었다. 최종심사에서는 번역 수준, 원작의 해외 수용도, 해외출판사의 위상, 번역가의 경력 등을 중심으로 러시아어, 영어, 터키어, 프랑스어의 4개 번역이 수상작으로 결정되었다. 시상식은 2017년 9월 6일(목) 저녁 7시, 한국언론진흥재단 20층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https://www.ltikorea.or.kr/notices/1216.do> 참조)

승주연 선생님의 번역상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더 많은 한국 작품들이 러시아어로 번역, 출간되어 러시아어권 독자들이 한국 문학을 보다 많이 즐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 학회지 발간안내

학회지 『노어노문학』은 연 4회 발행됩니다. 제1호와 제2호는 3월 30일과 6월 30일에 각각 발행되며 제3호와 제4호는 9월 30일과 12월 30일에 발행됩니다.

제27권 제1호에 게재를 희망하시는 회원들께서는 2월 15일까지 게재하실 논문을 첨부하여 [karll\\_edit@hanmail.net](mailto:karll_edit@hanmail.net)으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Jams System으로 투고 의무사항)

(학회지 논문 투고요령 참조) 형식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게재 신청 논문은 접수받지 않습니다. 게재 신청시 반드시 연회비와 심사료를 학회구좌(소식지 표지 참조)에 입금하셔야 접수가 완료됩니다.

평생회비는 50만원, 연회비는 5만원입니다. 평생회비를 납부하신 회원께서는 연회비를 내지 않으셔도 논문을 투고하실 수 있습니다.

논문게재료는 전임교원 회원의 경우 연구비 지원 논문은 20만원, 지원이 없는 논문은 10만원, 비전임교원 회원은 연구비 지원 논문 20만원, 그렇지 않으면 5만원입니다. 전임, 비전임의 기준은 지속적 급여 수령과 퇴직금 유무인데, 모호할 경우 학회 총무국으로 문의 바랍니다.

예) 비정년트랙 교수, HK교수 및 HK연구교수의 경우 전임으로,  
학진 지원 연구교수, 학진 전임연구원 등은 비전임으로 구분됩니다.

심사료는 3만원입니다.



## 학회지 투고 요령 및 심사규정

한국노어노문학회는 노어 · 노문학을 비롯한 슬라브어문학의 연구와 보급을 위하여 학회지 <노어노문학>을 매년 3월 30일, 6월 30일, 9월 30일 그리고 12월 30일, 연 4회 발행한다. 이를 위한 논문투고요령과 심사규정은 다음과 같다.

### 가. 논문투고요령

1. 분야: 노어학, 노문학, 슬라브어학, 슬라브문학, 노어교육학, 러시아 및 슬라브권 문학
2. 종류: 상기분야의 연구논문 및 서평요령
3. 분량: 최대 A4 28매 (참고문헌 포함). 초과 시, 장당 2만원 추가 게재료
4. 사용언어: 본문은 한글을 사용하되 부득이한 경우 편집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다른 외국어를 사용할 수 있다. 요약문은 본문과 다른 언어를 사용하도록 한다.

\*\*\*심사에 통과된 게재논문들은 학술진흥재단 홈페이지에 파일의 형태로 탑재됩니다. 이를 위해 학진은 한글과 외국어 요약문, 한글과 영문 주제어, 그리고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합니다. 따라서 논문을 투고할 때 학진제출용으로 상기 요구사항들을 추가로 첨부하여 제출해야 됩니다.

### 5. 작성요령

5.0 논문제목 : 아래에 필자명과 소속을 오른쪽 정렬로 한다.

단, 공동연구일 경우 제1저자(책임연구자)를 저자명 중에서 제일 앞에 배치함으로써 공동저자(연결저자 포함)와 구별함. 이때

제1저자에는 \*를 붙인다.

5.1 여백주기 : 초기 화면대로

5.2 문단모양 : 초기 화면대로

5.3 글자크기 : 초기 화면대로





#### 5.4 글자간격 : 초기 화면대로

#### 5.5 글꼴 : - 윤명조 120체 (서체가 없을시, 한컴바탕체로 제출 가능)

- 영어 및 러시아어 Palatino Linotype
- 모든 숫자 Palatino Linotype

#### 5.6. 그 외 주요 사항-1:

- 러시아작품명 (단편): “ ” 표시
- 러시아작품명 (중-장편): 『 』 표시
- 직접인용문장 (한글/러시아어/영어 모두) “ ” 표시
- 강조 (한글/러시아어/영어 모두) “ ” 표시 (밑줄 혹은 짙은색강조 하지 않음)
- 논문제목: 모든 언어 자료에서 “ ” 표시
- 저널 및 신문: 모든 언어 자료에서 「 」 표시
- 논문 제목: 15 진하게 (고딕체)
- 챗터 제목: 13 진하게 I. II. III. IV.... (고딕체)
- 챗터 제목: 서론, 결론 외 ‘들어가는말’ 혹은 ‘나가는 말’ 등의 다른 기타 표현을 하지 않음
- 챗터 소제목: 12 진하게 II-1. II-2. III-1. III-2...
- 본문: 11
- 각주: 10
- 본문 내 인용문단: 11 (행간은 각주에서 동일하게 130%)

#### 그 외 주요 사항-2:

- 도표, 그림, 사진: 자료 바로 하단에 정보에 대한 설명을 하되,  
[도표-1] “러시아 2015년 문학의 해, 모스크바 행사 내용”  
[그림-1] “Facebook자료 캡처”  
[사진-1] “톨스토이 생가 사진. 필자 직접 촬영” (2015.08.12.)
- 본문 내 인용 시, 앞뒤로 한칸씩 띄운다.

#### 5.7 각주



## [단행본]

저자 (편), 『서명』 (출판지: 출판사, 출판년도), p. 쪽수.

김종대, 『우리문화의 상징세계』 (서울: 다른세상, 2001), p. 24.

루이스 면퍼드, 『기술과 문명』, 문종만 역 (서울: 책세상, 2013), p. 201.

David Dordwell, *The Cinema of Eisenstein* (New York and London: Routledge, 2005).

В. К. Соколова, Ответ. ред., Традиции и современность в фольклоре (Москва: Наука, 1988)

Д. Николаев, Сатира Гоголя (Москва: Художественная литература, 1984), сс. 3-4.

김종대, *op cit.*, p. 29.

*Ibid.*, p. 87.

David Dordwell, *op cit.*, p. 39.

В. К. Соколова, там же. с. 98.

Там же. сс. 99-100.

## [단행본의 한 챕터]

저자, “챕터명,” 편집자 명(편), 『서명』 (출판지: 출판사, 출판년도), p. 쪽수.

김학준, “소련 데탕트政策의 논리와 현실,” 김학준 편, 『現代소련의 解剖』 (서울: 한길사, 1981), p. 38.

Irina Reyfman, “Prose Fiction,” in Andrew Kahn (ed), *The Cambridge Companion to Pushkin* (U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6), pp. 56-58.

D. N. Shalin(ed), *Russian Culture at Crossroad: Paradoxes of Postcommunist Consciousness* (Colorado: Westview Press, 1996)

Л. Н. Виноградова и С. М. Толстая, “Символический язык вещей: веник (метла) в славянских обрядах и верованиях,”

// Символический язык традиционной культуры (Москва: РАН, 1993), сс. 56-57.

김학준, *op cit.*, p. 209.

Ibid., p. 208.

Irina Reyfman, op cit., p. 78.

Ibid.,

D. N. Shalin(ed), op cit., p. 100.

Л. Н. Виноградова и С. М. Толстая, там же. с. 223.

## [학술지논문]

저자. “논문명.” 『학술지명』. 권 , 호 (년도).

김우승. “러시아 정교의 상징성과 문화적 실재.” 『슬라브연구』. 제 13권 (1997).

Денисова, И. М. “Этнос и культура. Зооморфная модель мира и её отголоски в русской на родной культуре.” Этнографические обозрения. no 3 (2003).

Sullivan, John. “Dukhovnye stikhi among Twentieth-Century Old Believers: Song-books of the Kilin Family.” The Slavonic and East European Review. Vol. 75, No. 3 (July, 1997).

## [그 외 문헌]

“러 올림픽 위원장 “푸틴 도핑 지원 주장 터무니없어.” 「중앙일보」. 2016년 1월 17일.

“러 올림픽 위원장 “푸틴 도핑 지원 주장 터무니없어.”

<http://news.joins.com/article/19421605> (검색일: 2016.01.17.).

“Российская неделя искусств “откроется в субботу в ЦДХ.”

<http://ria.ru/culture/20160116/1360389606.html> (검색일: 2016.01.17.).

Kotkin, Stephen Kotkin. “The Resistible Rise of Vladimir Putin.”

<https://www.foreignaffairs.com/reviews/resistible-rise-vladimir-putin3> (검색일: 2016.01.17.).

7. 제출형식 : ‘아래아 한글’ 로만 작성하여 제출함. 편집양식을 이행하지 않은 투고논문은 반려함. 국문초록은 700자 이내로.

8. 제출마감일 : 매년 2월 15일, 5월 15일, 8월 15일, 11월 15일

9. 제출처 : karll\_edit@hanmail.net

10. 게재료규정 : 대학의 전임 및 이에 준하는 회원이 연구비지원을 받았으면 20만원, 그렇지



지 않으면 10만원, 비전임 회원이 연구비 지원을 받았으면 20만원, 그렇지 않으면 5만 원을 학회구좌에 납입한다.

(\*논문제출시 연회비 또는 평생회비와 논문게재료, 심사료(3만원)를 학회구좌에 납입한다. 심사결과 게재불가 판정을 받을 경우 게재료를 환불해 드립니다.)

### 11. 배포방식 : 비매

## 나. 논문심사규정

1. **심사위원회 구성** : 편집이사를 포함하여 편집위원들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심사위원의 임기는 임원진의 임기와 같되 연임 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 편집이사의 동의를 얻어 관련분야의 국내외 전문학자를 비상임 심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2. **심사원칙** : 논문 1편당 3인의 심사위원이 심사하도록 한다. 심사결과는 논문 제출자에게 개별 통보하되, 해당 심사위원의 명단은 공개하지 않는다.

### 3. 심사판정

#### 3.1. '게재 가'

- ① 3인의 심사위원 전원이 '게재 가' 판정
- ② 3인의 심사위원 중 2인의 심사위원이 '게재 가' 판정

#### 3.2. '수정 게재'

- ① 3인의 심사위원 중 2인의 심사위원이 '수정 게재' 판정
- ② 필요시 수정 후 재심을 통과한 후 게재

#### 3.3. '게재 불가'

- ① 3인의 심사위원 전원이 '게재 불가' 판정
- ② 3인의 심사위원 중 2인의 심사위원이 '게재 불가' 판정
- ③ 논문제출자가 심사위원회의 수정권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논문제출시 연회비(5만원)와 심사비(3만원)를 학회구좌에 입금. 논문통과 후 논문게재료를 학회구좌에 금.

## 회비 납부현황

### ▶ 평생회비 명단

고 일, 곽태석, 권철근, 강덕수, 강명수, 강흥주, 권철근, 기연수, 김경태, 김군선, 김근식, 김기열, 김문황, 김상현, 김선진, 김선명, 김성완, 김성일, 김세일, 김신호, 김원한, 김재환, 김정아, 김정일, 김준석, 김진규, 김 혁, 김현택, 김홍중, 문석우, 문성원, 문준일, 박미령, 박선영, 박춘은, 박태성, 박혜경, 배대화, 백준현, 서상국, 석영중, 송정수, 송헌배, 심용보, 안병용, 안병팔, 안상훈, 안 혁, 양영란, 양창렬, 오종우, 유승만, 유학수, 윤경숙, 윤우섭, 이기주, 이길주, 이덕형, 이명자, 이상룡, 이수경, 이영범, 이용권, 이은순, 이종진, 이진아, 이진희, 이형구, 이희숙, 이희원, 장 실, 정막래, 정보라, 정연호, 조성연, 조혜경, 차지원, 채혜연, 최건영, 최종규, 최영미, 최윤락, 최인선, 최진석, 추석훈, 표상용, 한만춘, 한예경, 한 용, 한지형, 함영준, 홍기순, 홍대화, 홍상우, 홍정현, 황성우.

분납 : 강수경(10만원), 김태옥(20만원), 박영은(20만원), 윤새라(35만원), 천호강(25만원)

▶ 연회비(5만원) 명단 : 조혜경, 장 디아나, 조준래, 박선영, 황서경, 장혜진, 김주연, 박미정, 심지은, 기계형, 남혜현, 김보라, 김상현B, 이주만, 임혜영, 한현희, 이경완, 김민아

▶ 기관 회원 명단 : 대전대학교 도서관

※ 회비 납부 현황에 착오가 있는 회원은 총무국(karll21@hanmail.net)으로 연락을 주십시오.